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초한 단편 소설 묶음 입니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차 례

– 그림자

0) 사람이 잊어갈 때.....120

1) 무엇을 두려워하는가.....122

2) 소망을 잃어갈 때.....131

3) 누구를 찬송하는가.....154

4) 왕 같은 제사장들아.....176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그림자

Shadow

By 287

Jun, 9th, 2021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0) 세상이 잊어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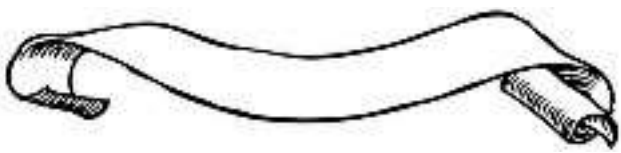
노아 일가족과 이 세상이 겪은 방주의 심판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불순종은 계속되었다. 사람의 아들들과 딸들은 니므롯을 기점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중심에 반역하는 마음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혀와 언어를 뒤섞어 나누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뿔뿔이 흩으셨다. 그러나, 흩어진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깎고 빚어 만든 신들에게 절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들만의 왕국을 이루어 나갔다. 인류의 조상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버젓이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는 잊혀져만 갔고, 만유의 주님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그들의 증언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고백하는 믿음은 이어졌다. 그들을 홍수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가운데에서 살리신 주님의 믿음은 사람들이 낳은 것이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었기에 그러하였다. 믿음의 선친들은 스스로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을 떠나가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다. 믿음을 품고 지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별처럼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을 그들의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요 3:8)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1)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가나안 땅 일대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불우한 가정에서 항상 부족한 삶을 살아온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거리에서 노닐다 보게 된 부자를 보고 꿈을 가지게 된 사람이었다. 수많은 보석과 비단으로 감싸인 부자의 모습에, 그는 흥조를 띠우며 자신의 모습을 그 부자에 투영하였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그의 삶에, 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일상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다. 꼬마의 소원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거칠 것 없이 행동하는 결단력 있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허드렛 일을 시작하여, 조금씩 자신만의 돈을 벌기 시작한 그는 자신의 지분이 생기면서, 조그맣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재물이 쌓일수록 그는 이를 더욱 확장해 나갔고, 어느덧, 작고 비루하던 소년은 큰 부자가 되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의 권세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추수할 계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그의 집에 모여들었고, 그런 그들에게 부자는 축복의 말들을 전하곤 하였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가축을 자신의 목장에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하인들은 쉬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날로 번성하였고, 그를 찾아와 일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다. 그렇다고, 부자가 돈만을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고집하고 사랑하여, 자신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그들을 자비롭게 다스리며 지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섬겼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을의 부자는 그들의 어버이요, 그들의 필요를 항시 채워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와 주인의 재산이 커져갈수록, 그들이 섬기는 주인의 부담도 함께 커져감을 눈치채진 못하였다. 그들의 관심은 주인이 아닌 그들의 안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이 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이 사실은 메마른 땅이 이슬비에 젖어가듯, 부자에게 서서히 찾아왔다. 스스로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힘과 재산을 지니게 된 부자가 상황을 깨달았을 즈음에는, 이미 너무 먼 길을 걸어온 후였다. 그는 여느 외롭고 지친 사람들처럼, 외길만 고집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일생동안 지낼 재산을 벌게 된다면 이 일을 멈추리라 생각하였건만, 일생동안 지낼 재산은 쌓아도 쌓아도 언제나 부족하게만 느껴졌다. 이젠,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인척들을 위해서라도 일을 멈출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젊고 지칠 줄 몰랐던 부자의 영혼은 어느덧, 해를 넘길수록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었다. 약해져가는 몸과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마음에, 어릴 때 떨쳐냈다 생각했던 결핍의 두려움이
다시 자리잡기 시작했다. 가난한 시절의 자신은 허기와
굶주림에 갈증을 느꼈지만, 부유해진 지금에 와서는
가진 재산이 올무가 되어, 채울수록 더 커져가는
불안과 자신의 물건을 앗아가려는 도적들에 대한
두려움에 몸이 말라갔다. 잠시나마 자신의 지친 영혼을
돌아보려 할 때마다, 부자의 눈 앞에는 그의 목장이
항상 채이곤 하였다. 그가 다스리는 목장은 너무나
넓어 다 돌아보기에는 시간마저 촉박했기에, 부자는
지칠 겨를도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연민과,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자신의 눈과 귀로만 쉼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기에,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는
그의 재산과 하인들을 점검하면서, 그의 나라와 같은
목장을 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얼마전부터, 목장을 다스리는 주인은
자신의 일꾼이 된 청년 한 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목장일을 돌보는 이 청년이 언제부터
자신의 밑에서 일하였는지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지금보다는 좀 더 앳되어 보였을 때 자신의 집에
찾아와 일을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워낙 말수도
적은데다, 성실하고 묵묵히 지내온 친구라 그런지,
부자는 그에게 토를 달 일이 없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는 한 마디 말도 없이,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조용하다 못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과묵한 청년의 모습에, 쉬이 가깝게 대할 수 없었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상히 여겼다.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저 아이 같은 청년을 '말 없는 이'라 불렀다.

부자는 '말 없는 이'에게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다. 주인의 일꾼들이 일과가 끝나면 그들의 품삯을 받으러 찾아오던 것과는 달리, 그는 그의 품삯보다는 그의 거처에서 쉬거나,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더 치중하곤 하였다. 마치, 자신의 부요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부자에게 속해 있었으나, 그의 눈을 보자면 어떤 자유인보다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주인은 '말 없는 이'가 자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남으로부터 자신을 채워나가려 하였다. 하지만, 지금 자신 앞에서 일하고 있는 이 청년은 달랐다. '말 없는 이'는 진정으로 그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인에 국한된 관계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와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다. 이 청년의 입에는 거짓이 없어, 그보다 나이 많고 지혜가 넘치는 다른 이들보다 더욱 신뢰가 갔다. 부자는 그에게선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선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월이 제법 흐르고, '말 없는 이'는 부자의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종이 되어, 그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말 없는 이'를 알게 된 이후로, 주인은 그에게 자신의 일들을 맡기며, 편안히 두 발을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그의 종은 말로만 주인을 기쁘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으로 주인을 섬기었다. 이 청년을 통하여, 부자는 자신을 시시각각 노리는 그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평안한 날이 지속되었고, 그는 이런 안녕이 내일도 계속되리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날도 여전히, 주인은 여러 일들로 바쁜 와중이었다. 불현듯, '말 없는 이'가 주인을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흔치 않는 행동이었기에, 그는 궁금한 마음에 소년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더냐, 갑자기 일 하다 말고?"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종이 이제 이곳을 떠나려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주인은 그의 갑작스런 행동에, 순간 자신이 잘못 듣지는 않았나 생각을 하였다. 아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동안, 그의 머릿속은 '말 없는 이'의 청을 납득하려 애를 썼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부자가 이 상황을 수없이 되뇌어 봐도, 바뀌지 않는 소년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의 마음에, 그가 예전에 간직하였던 두려움과 걱정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전보다 훨씬 부유히 살아가던 목장의 주인은 자신의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완벽하다 생각했던 왕국이 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말 없는 이'가 가볍게 짐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만의 소유였던 이 청년이 짐을 싸 다른 곳으로 가려 한다는 상황에, 조급해진 부자는 어떻게든 그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 없는 이'는 그의 소유라기보다는, 그와 계약을 맺은 자유인이었다. 자신의 거주지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다보니, 주인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 청년은 처음부터 그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어떤 노예보다 더욱 성실히 일을 해왔고, 부자는 그런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길 수 있었다. 그가 떠난다면, 자신의 목장을 다스리는 일에 더 많은 수고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생각이 드니, 주인은 청년이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이 마냥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이 청년을 향한 애정도, 자신의 사람이라는 자랑스러운 기쁨도 있었지만, 그 안에 본질은 부자도 여느 그의 종들과 다를 바 없었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그것이 그의 마음 속 깊숙히 자리잡고 있던 감춰진 뿌리였고, 그 자신도 알지 못하던 진실이었다. 부자가 '말 없는 이'에게 겁을 주며 말하였다.

"혼자 살아가기 보다는 여럿이 모여 정착하는 이곳이 더욱 안전하지 않겠느냐?! 지금 네가 하려는 행동은 위험이 도사릴 뿐이다! 다른 곳에서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주인의 경고는 더이상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부자가 다시 되뇌이듯 말하였다.

"네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아느냐? 늑대같은 맹수들은 또 어떻고? 굶주릴지도 모를 뿐더러,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다 쓰러질지도 모른다. 네가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정하고 그곳으로 간다 하면 또 모르겠으나, 이리 정처 없이 떠나려하니 내가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

'말 없는 이'가 그의 짐을 꾸려,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그가 싼 짐을 들고, 부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부자는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할 것만 같던 이 청년이, 이 순간 그의 곁을 떠나리라는 사실을 직시하였다. 적대할 수 없는 청년의 두 눈망울을 보며, 그는 이젠 아쉬운 마음에 '말 없는 이'를 붙들며 말하였다.

"이렇게 갑작스레 떠나야만 하겠느냐? 너는 내게 참으로 충성된 자였다. 혹여 누군가, 아니, 내가 너에게 못 할 짓을 한 것이 있었다면, 부디 알려다오. 내가 네게 채워주마."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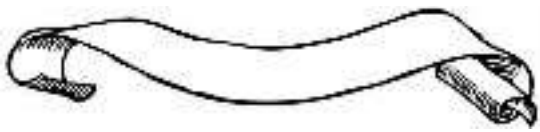
주인의 손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이윽고 '말 없는 이'는 부드럽게 부자의 손길을 어루만지며 대답하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내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부자의 종으로서가 아닌, 난생 처음으로 듣게 된 그의 목소리는 앳되어 젖이 필요한 아이와 꼭 같았다.

'말 없는 이'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부자에게 인사를 마친 후, 조용히 자신의 걸음을 그곳에서 옮겼다. 그런 그를, 그의 옛 주인은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말 없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곤 없었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 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마태복음 10:7-10)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2) 소망을 잃어갈 때

지금은 잊혀져 이름조차 까마득한 자, 모든 민족들 전에 있었고, 모든 조상들의 아버지였던 셈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 한 분께만 예배드리는 자였고, 사람들 사이에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며,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궁창과 땅이 물로 덮히기 이전과, 하나님의 심판 이후 도래한 새로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던 그는 역사의 산 증인이자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 집안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한 그의 증언을 듣는 무리는 극히 적었다.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은 자신들의 정처 없는 길을 찾아 헤매었고, 세상을 그들의 임의대로 다스리는 정복자, 용사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탑을 쌓는가 하면, 서로의 땅을 침범하여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노아의 시대처럼,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며 셈은 절망하였다.

'이리 사람들이 전과 같이 죄를 짓는다면, 어찌하여?'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소름돋도록 피부로 느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들을 제외하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불순한 영광들이 물로 씻기어 사라져 갔다. 그가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경험한 전능하신 분께서 자비를 거두신 심판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참혹한 결과였다. 방주의 사건 이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날씨가 전과는 판이할 정도로 거칠게 바뀌었고, 사람들의 수명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었다. 후손들의 외형도 척박한 환경으로 인한 탓인지, 자신의 시대보다 왜소해져, 마치 자신이 네피림이 된 것 마냥 느껴질 지경이었다. 더불어, 셈은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보다 먼저 삭고 늙어, 그의 곁을 떠나는 비극을 경험하여야만 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은 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닌, 그의 가르침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후손들의 수명이 그들의 조상들보다 짧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르침은 급속도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지금은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명맥을 이어가고는 있다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거란 불확실한 미래, 큰 두려움이 셈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또 저희를 살아가게 하신단 말인가?'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눈과 지혜에는 한치도 도달할 수 없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단 하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변치 않는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면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눈, 그들의 삶, 변치 않는 타락의 길, 죄인의 마음이었다. 셈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무시하거나, 아예 믿지 않기 시작하였다. 셈에게 있어, 자신이 겪은 이야기는 절대로 잊어선 안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한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주님을 두려워하며 지내곤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살아가는 짧은 인생 동안, 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루였기 때문이었다. 각기 자신만의 길로 떠난 사람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옛 일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그들의 우상들로 채워가기 시작하였다. 또, 그들은 서로의 침략을 막기 위해 험준한 성벽을 쌓고, 많은 민족을 이루었다. 형제들은 원수가 되었고, 한 핏줄이었던 가족들은 서로를 물어뜯었다. 오로지, 그의 오랜 후손 중 한 명인 아브람이란 청년만이 사람들이 절하는 우상의 본질, 곧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숭배한다는 거짓에 회의감을 느끼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존재란 진실에 다다랐을 뿐이었다. 말씀을 받은 그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가르쳤다. 문득 느낀 그리움에, 셈은 그의 어린 후손을 떠올렸다. 지금 그 아이는 어찌 지내고 있을런지…아버지도 주님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품으로 떠난 지금, 믿음 가운데 이리 홀로 서 있을 때에,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을 그리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실례일까? 주님께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 고로, 사람들은 모든 지혜에 통달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은 항상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에, 영원토록 무지한 존재로 살아간다…'

남들에게 있어 그는 왕이요, 사람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예배자이기도 하였던 셈은 어느 순간부터 혼자가 되어버린 그의 삶 속에 흉터처럼 새겨진 질문이 자리잡았다. 이 욕심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모르는 후손 하나를 붙잡고 털어 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 있는 후손들은 셈을 보면서 부족함이 없다 자부하였으나, 그는 그들이 모르는 갈증이 존재하였다. 그저, 사람에 불과한 자신의 심중에 자리잡은 이 공허한 사실에 응답해 주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따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셈은 여느 날처럼 그의 사람들로부터 그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마을)가 어떠한지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이자, 그의 증손자 에벨이 발견한 소식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였다.

"저도 처음엔 이 자가 무엇을 하는지 확신이 서질 않아, 시간을 들여 그 자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다른 사람들이 욕하며 피해 다니는, 더럽고 병든 무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이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셈은 에벨의 말을 듣고, 이를 이상히 여겼다. 외지에서 오는 객들을 대접하고 복을 비는 일은 자신도 하는 일이었다. 허나, 이처럼 발붙일 곳 없는 사람들을 자진하여 받아들이는 자는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같은 곳에 있어, 발견하기 쉽다는 얘기를 들은 셈은 간소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그를 찾아갔다. 조그마한 샘물이 솟아 흐르는 근처에, 자그마한 방과 같은 집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셈은 그곳에서 자신이 듣던 청년을 발견하였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도, 빼어난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얼굴이었다. 어디 하나 남들보다 특출난 점은 보이지 않았으나, 용사들의 눈매와는 거리가 먼, 맑은 눈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었다.

"평안하시오(샬롬)? 폐가 안 된다면, 잠시 쉬었다 가도 되겠소?"

"예, 어르신. 이쪽에 앉으셔서 편히 계십시오."

셈은 경계를 풀고, 처음 보는 이를 따라가, 그가 일러준 자리에 앉았다.

"고맙네."

셈이 물을 세도 없이, 그의 앞에 발을 씻을 물과 간단히 요기를 할 음식이 차려졌다. 그는 군말 없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 집주인의 행동을 살폈다. 그는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피골이 상접한 노인에게 물을 떠주어 먹이고 있었다. 선한 그의 모습에 호기심이 차오른 셈은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겐가? 지금 하는 일이, 자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는가?"

그는 고개를 돌려, 셈을 가만히 응시하였다. 이윽고, 그가 대답하였다.

"제 유익은 되지 못 할 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유일하신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희미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고백은 기이한 일이었다. 지금 이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꺼냈다 생각이 든 셈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자신 앞에 있는 청년에게 말하였다.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니, 너무 서운해 말게나. 그저,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를 섬긴다 한들, 그것이 자네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다 줄지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은가? 그리 생각하다 보니, 자네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하여 물어본 것이라네."

"그러셨군요.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내 주님을 향한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어르신의 믿음에도 일부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셈의 눈 앞에 있는 청년의 첫 인상은 아무것도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이 성취하는 열매를 바라고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의 눈 앞에 아무런 유익도, 결과도 바라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방인의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이 자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영문을 몰라 계속 물었다.

"무릇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법이네. 낮은 이가 높은 이를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란 소리지. 하지만, 자네의 모습은 이 세상과는 역행하여, 거꾸로 서 있는 것과 진배 없으니…말해주게, 지금 자네가 하는 이 모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들이 어떻게 큰 결과로 이뤄진다는 말인가?"

"모릅니다."

"모른다구? 모른다는 것만큼 무책임한 답변은 없을 것 같네만."

"전, 제가 아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모른다 말할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안다 시인하면, 그것은 제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될 테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에 모른다 답할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이루려 할 따름인 것이죠."

"지금 자네가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다는 것인가? 그 자가 악한 사람일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러고 있을지 누가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알겠는가? 그런 사람들을 도왔다간, 하늘에 계신 분께서도 자네에게서 그분의 눈을 가리우실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넬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진 못 할 터인데?"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그분을 알리는 일 외엔 대꾸할 필요는 없겠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물론 힘들고 괴로울 터이나, 절 이끄시는 분께서 흡족해 하신다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그분에게만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이의 말에, 셈은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의 후손들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었기에,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는 자신의 눈 앞에 있는 자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려, 다시 입을 떼었다.
"자네의 하나님이란 분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자넬 이리 살게 하시는 것인가? 자네가 위대하신 분께서 보내신 사자라면, 내게 말해주게나. 어찌, 그분의 능력으로 이 억압받고 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윤택히 채워주시지 않느냔 말인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시는지 알고 싶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그 질문에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앎과 모름을 같이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다는 것을 높이고, 모른다는 것은 수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은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모르는 것을 전능하신 분께 돌리며,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답하실 것이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에서 시작하여, 믿음을 거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이 우리에게 말을 하건, 침묵을 하건간에 말이죠."

"…그렇군."

소년의 대답을 들은 셈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지을 뻔 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휘젓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 앞에 있는 아이의 마음을 휘저어 요동치게 하고 계심을 느꼈다. 그래서, 장난을 치듯, 셈은 땅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이 청년을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마치,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주를 바라보며, 어찌 재롱을 부리려나 하는 마음이었다.

"자네가 섬기는 분께선, 지금 자네가 사는 이곳을 다스리는 통치자보다 높은 분이시란 말이지?"

"맞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길 다스리는 왕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당장에 자네 신변이 위태로워 졌을 것이네. 내가 만일 자네였다면, 자신이 하는 말에 더욱 신중을 기했을게야."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께서 허락하신 어른들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주인, 보살필 자들에게요."

'그렇단 말인가…그렇다면…'
셈은 자신의 입가에 드러나는 미소를 애써 숨겨가며, 그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자네는 나에게 절하고 내 명령에 복종할 텐가?"

"물론, 지금 이곳을 통치하시는 분의 땅에 살고 있으니, 전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저도 왕이라면, 왕께선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답변에, 셈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그가 청년에게 다시 물었다.
"지금, 자네 또한 왕이라 말하고 있는 겐가?! 허면, 왕이 어찌 땅도, 백성도, 재물도 없이, 이리 빈곤히 살아간단 말이더냐?"

"왜냐하면, 저는 세상이 스스로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본래의 이름은 '멜기세덱 (의의 왕)', 제게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의의 왕'이 네 이름이라고?!"

사람들은 이곳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셈을 보며, 그를 '아도니세덱 (의의 주)'이라 부르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하였다. 그런데, 지금 셈 앞에는 그 칭호를 자신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자가 서 있었다.

"제가 예전 일하던 곳에선, '말 없는 이'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왕께서도 종을 그렇게 불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 것이면서,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정체를 들킨 셈은 그 사실도 잊고, 그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보잘것없는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선 샘이 솟듯이 듣는 이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셈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이한 답변을 이해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네 이름이면서, 너의 이름이 아니라니? 대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그 이름의 소유를 남에게 줄 수 있더란 말이냐?"

"내 주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 이름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이름을 빌려주신 분께선, 그 이름을 잠시 종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을 따름입니다. 이 영광은 종이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셈은 자신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이방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하나의 의문이 생겨 질문을 하면, 떡잎이 갈라지듯 새로운 질문이 돋아난다. 어떠한 변론을 펼치기에 앞서, 모든 입술들을 닫히게 하는 말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묘한 매력을 풍기는 이 사람이 싫지 않았다. 셈은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주위를 둘러, '말 없는 이'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모두 다 그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뿐이었다. 이런 왕이 또 있을까…이 세상에 가장 높다 하는 존재가 가장 비천한 이들보다 상하게 살아간단 말인가?

"내 아들아, 이 세상은 선도 악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단다. 때로는 이해가 가질 않더라도, 우리는 분명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만인 것일게야."

불현듯, 그의 마음에 젊은 시절 그의 아버지 노아가 얘기해 주었던 말이 생각이 났다. 셈은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그를 가르쳤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다. 그는 다시 한번, 그가 가진 의문의 갈증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자신이 숨쉬는 바람도 주님께로부터 온 숨결이요, 자신이 따르고 섬기는 주님의 소망은 자신의 눈을 채우는 만족이 아니리라. 크게 숨을 들이쉰 셈이 '말 없는 이'에게 말을 건네었다.

"자네는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아가려 온 것이 아니었나? 예배와 제사에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가르쳐 주겠네. "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르신께서 괜찮으시다면,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히 살아가겠습니다."

셈은 그의 앞에 있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예배자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왕임을 자각했다. 모름지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왕들의 삶이란 자신이 바라는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존재였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세상 왕들의 삶이 그들의 욕심만을 채울 뿐,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아무런 발자취도 남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셈은 진실된 왕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그는 이 세상 왕들의 위에 계시며, 지존자 되신 왕 중의 왕께서 한 분 계심을 다시금 깨달았다. 자신이 갈 수 없는, 가기도 싫은 가장 낮은 곳에조차 내려오셔서 다스리고 계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서야 조금은 알게 된 것만 같았다. 그렇기에, 보고 싶었다. 사람이 이루지 못 할 소망을 저 '말 없는 이'의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셈은 그의 바람대로 자신의 조그마한 땅, '말 없는 이'가 사는 곳을 내주어, 그가 그곳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왔다. 주님을 믿는 이들과 그들의 원수마저도 통치하고 계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왕의 친절함으로,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작은 땅을 얻게 된 '말 없는 이'는 병든 자들, 마을에서 쫓겨난 자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이 소식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되어 퍼져 나갔다. 사방에서 만민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아름답거나,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빼어나거나, 출륭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가난한 자, 배 곯는 자를 비롯하여 문둥병자, 불구자, 버림받은 자, 사랑 구실을 못하는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되었다. 모든 질병을 떠안듯이, '말 없는 이'는 그들을 자기 품에 받아들였다. 때로는, 자신의 병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였고, 직접 그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그의 나라가 여러 가옥에서 한 마을로 커져 나갈수록, 주변 왕국의 거리는 더욱 깨끗해져 갔고, 세상 왕들의 백성들은 더욱 아름다워져만 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이 더럽고 부정하다 여겨 쫓아낸 사람들을 떠맡은 나라를 기억하지 않았다. 작은 망대 하나 없는 '말 없는 이'의 왕국은 다른 의미로 난공불락의 요새,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적들도 다가가길 꺼려하는 그의 왕국에는 세상이 눈독들일만한 조그만 장신구 하나 존재치 않았다. 가난한 백성들은 서로가 함께 일하며 양식을 구해 나눠먹는 일이 태반이었고, 고기를 먹는 날은 다른 평범한 이들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말 없는 이'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내치지 않고 받아주어 살게 한 이곳이 그 어떤 견고한 성보다 든든하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며, 평화로이 늙어가리라.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땅에는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하는 은혜, 참 평안이 존재하였다. 어떤 이들은 이 작디 작은 왕국을 가리켜 '을룩흘락(더러운)'이라 부르며 조롱하였다. 하지만,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말 없는 이'를 아는 셈과 '말 없는 이'의 백성들은 이 왕국을 '살렘(평화)'이라 불렀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28-30)

'말 없는 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세상이 섬기는 신들이라 불리는 우상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살렘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셈과 '말 없는 이'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왕,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지 보고 배우게 되었다. '말 없는 이'는 온유한 품성을 지녔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옹호하거나 다독이진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않았다. 그들에게 때로는 말로 다그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며 혼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다.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가 스스로를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지에 의문을 가졌고, 그들은 '말 없는 이'의 뒤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한걸음 한걸음 깨달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왕을 보며 느꼈던 빼어난 선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또한 그들의 왕인 '말 없는 이'가 그의 주님, 곧 태초 전부터 계셨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살아계시고 함께하실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들도 그들의 왕인 셈과 '말 없는 이'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신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살렘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곳에 사는 자들 중에, 자신의 삶을 부족하다 여기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편과 지위는 헛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그분의 백성이요, 만유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종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들 앞에 있던 그들의 왕도 알아갔다. 이런 걸음이었고, 이런 마음이었구나…이런 슬픔이 있었고, 이런 감동이 있었구나…하나 하나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그들의 삶이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 받고 있단 사실에, 놀랍고 기쁠 따름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 없는 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다. 그러나, 주님의 만족은 사람들의 것과는 달리,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짧은 겨울 해와 여름 달처럼, 살렘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그들의 왕인 '말 없는 이'에게 의지하고 따라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경위는 생각보다 짧고 갑작스레 그들에게 찾아왔다 – '말 없는 이'의 몸이 점점 수척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져만 갔고, 시종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아졌다. 아무래도, 그가 돌보는 병자들의 병이 옮은 듯 하였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등잔의 불이 바람에 일렁이듯이,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말 없는 이'의 상한 몸을 보며, 걱정되는 마음에 그의 곁에 남아, 항상 지쳐있는 그를 돌보았다. 행여,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의 부재를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것이었다. 오늘내일할 것만 같은 그들의 왕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하지만, 그들의 안색과는 달리,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말 없는 이'의 표정은 한결같았다. 마치,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그 와중에, 세상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나라가 왕성하던 때에, 큰 반란이 일어났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 총 다섯명의 왕들이 이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 대적하였던 것이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진두로 이루어진 네 왕들의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다섯 왕들의 동맹군은 싯딤 벌판에 모였다. 마침내, 그들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 싸움은 다섯 왕들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다. 네 왕들의 군대는 도망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음식물과, 그들의 백성들과 가축들을 약탈하기 시작하였다.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선, 셈의 먼 후손인 아브람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다. 셈은 아브람이 그들의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네 왕들을 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기도가 끝난 직후, 자신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었다.

"아브람과 그가 키워 훈련시킨 장정들은 그들의 원수를 쳐 물리칠 것이다. 비록, 그들의 수는 적을지라도, 그들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셈은 자신이 모은 사람들과 의논하여, 조카 롯을 구하러 간 아브람을 돕기 위해, 그들이 먹을 식량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다. 서둘러 준비하기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시작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인 왕국의 열악한 환경으로 준비가 늦어지면서, 아브람에게 떠나는 길이 조금씩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더욱 부지런히 일을 진행하였다. 발이 빠른 자들이 모이고, 나귀의 등에는 아브람의 무리가 싸움 이후 먹을 식량들이 얹혀 쌓였다. 그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를 준비하러 자신의 장막으로 급히 발을 옮기는 '말 없는 이'도 있었다. 숨을 헐떡인 채, 거동이 불편한 그를 보면서, 셈은 걱정되는 마음에 그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겠는가? 자네 몸이 여실히 좋지 않아 보이네만. 마음만으로도 고맙네. 자네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에 의심할 자는 없다네."

고통에 몸부림치는 '말 없는 이'는 왕의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내 주여, 호의에 감사합니다만, 저는 가야만 합니다. 제 몸보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충만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다시 한번, 셈은 그의 눈에서 처음 만났던 때와 같은 맑은 눈을 목격하였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은 눈이었다. '말 없는 이'를 말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셈은 그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순순히 보내주었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말 없는 이'의 시종은 한숨을 쉬며, 그가 섬기는 왕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자신이 왕의 손길에 이끌려, 이곳에 산지도 날을 셀 수 없었다. 세상과 비교할 때, 배는 여전히 굶주리고 삶은 고달프게 느껴지나, 참 평안이 존재하는 살렘은 자신이 고향이라 부를만한 곳이었다. 만약 자신들의 왕이 죽는다면, 앞으로 이곳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시 혼자가 되어,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더이상 감당키 어려웠다. 이런 저런 생각이 겹친 채 고개를 돌린 시종은, 병석에 누워 걷기도 힘들어하던 자신의 왕이 예전처럼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그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말 없는 이'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사에 쓸 재료가 필요하구나."

'말 없는 이'의 시종은 왕의 갑작스런 요청에 놀라, 몸을 떨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나머지, 이웃들과 같이 제사에 쓸 고기에 손을 댄 것이었다. 어찌할 줄 몰라,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눈만 굴리고 있을 때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걱정 말거라. 셈 어르신, 우리 왕께서 당장 필요로 하시는 건, 여러 사람들이 요기할 빵과 포도주 정도이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사람 몇을 모아, 지금 당장 반죽을 시작하자꾸나."

제사에 찾는 것이 고기가 아니란 소릴 들은 종은 얼른 왕의 명을 시행하려 하였다. 그 때, '말 없는 이'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게도 반죽할 거릴 가져오너라. 내가 직접 빵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게 이 빵과 같이 먹을 포도주를 내어다오. 이 두 가지로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시종은 자신의 주인이 전하는 말에, 어안이 벙벙하였다. 주인의 명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를 곰곰히 헤아려 봐도,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드릴지 가르쳤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주인이었다. 자신의 왕이 준비하려는 이 변변찮은 음식들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었다.

"오늘은 내가 바깥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너는 사람들에게 알려, 내가 말한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전하거라. 혹여나,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도록 엄히 경고하거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말 없는 이'는 부푼 빵을 눌러 가라앉히고, 가죽에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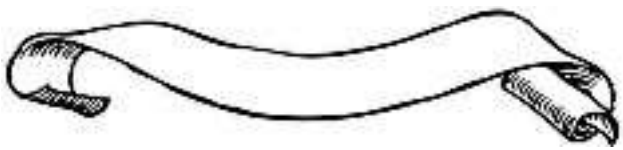
포도주를 담아 심에 실었다. 그의 시종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에게 물었다.

"내 주여! 가실 동안 마실 물을 준비하리이까?"

그리 물은 종에게 왕은 고개를 돌려, 인자하지만 변함없는 얼굴로 답하였다.

"이것으로 충분하다(These 'is' enough)."

'말 없는 이'는 그의 종들과 자신이 만든 빵과 포도주를 챙겨, 서둘러 셈의 뒤를 따라 아브람이 돌아오는 길목으로 향하였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1:23-26)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3) 누구를 찬송하는가

"아브람아, 너는 유일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아브람이 노아의 입에서 들은 마지막 가르침은 너무나 쉬운 말처럼 들렸다. 자신의 믿음의 조상에게서 들은 이 말씀은 젊은 시절의 그에게 살아있는 고백으로 다가왔다. 아브람은 자신의 조상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배웠다. 또,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끝에 물로 멸망하였다가 다시 번성하였지만, 여전히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을 잊어 거역하고 반역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거짓 없는 가르침을 통하여, 아브람은 세상을 거부하는 진실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본토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거처를 옮겨갔다. 수많은 곳을 둘러보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왔으며, 여러 사람을 만나보았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자신과 자신의 조상처럼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아브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 그의 아버지와 고향땅을 떠나,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향하였다. 이 여정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가운데, 아브람은 그가 조우하는 객들과 이웃들에게 존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파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를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겸허히 경청하였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아브람은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 지나고, 그의 지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아브람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커다란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다. 하나 둘씩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가 친자식처럼 아끼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브람은 자신이 지켜가는 믿음을 붙들며 생긴 외로움에 좀먹혀 가고 있었다.

그는 이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크나큰 외로움이 존재하리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었다. 자신의 말을 따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 아버지와 가족과의 이별은 순종에 의한 일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고픈 아쉬움이 컸다. 자신의 아들과 같았던 롯과 그의 가정이 아브람의 곁을 떠났을 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낙담하고 상심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키셨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어제의 자신보다 커져갔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렇기에, 너무나 명료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과 아브람이 목격하는 현실, 곧 아브람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날들 사이에 존재하는 틈은, 그분의 임재 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주님의 약속과는 달리, 너무나 동떨어져만 보였다. 그는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보낸 이들과 함께 온전히 이뤄지지 않는지 그 어떤 이유도 찾아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가 밟는 땅과 먼지처럼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고, 아브람은 그의 주님을 한결같이 신뢰하였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지쳐만 갔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살아간지도 여러 해가 흘렀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있었으나, 자신의 삶에 가끔씩 고개를 내밀어 그를 괴롭히는 불안과 정죄 또한 공존하고 있었다. 존귀하신 분의 명을 받들어 살아간지 날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건만, 그의 삶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물론, 그의 힘은 날이 갈수록 점점 강대해져 갔고, 그가 돌보던 가축들은 배로 늘어갔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집안 내에 분쟁과 다툼 또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아브람 또한 친아들로 여기던 조카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롯이 그의 곁을 떠나간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주님의 약속은 한결같았다. 아브람이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두려울 때나, 담대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 분이셨다. 그러나…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이리 확신에 차 있건만, 지금 자신의 마음 한 가운데 잔재하는 쇠한 영혼, 지쳐만 가는 아브람 자신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브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를 찾으시고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의 아내 사래를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으며, 자신의 목숨 또한 부지케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설령, 자신이 주님을 의심하고 엇나가 진흙탕에 뒹굴 때에라도, 주님께선 당신이 하신 맹세를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아브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천한 자신 가운데 존재하는, 이 큰 구렁텅이 같은 틈을 감당할 엄두가 나질 않았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며 세월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의 마음이 혼란한 와중에도, 해와 달은 성실히 뜨고 지기를 반복하였고, 아브람은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는 어려움과 자신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소망하며, 이를 기다리는 예배자였다. 그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롯이 적국에 사로잡혀 끌려갔다는 비보였다.

자신의 유업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던 아브람에게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요, 아버지를 여읜 롯에게 아브람은 친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다. 조카와 그의 식솔들이 잡혀갔단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훈련받은 자신의 사병들과 함께, 그들이 잡혀있는 단 지역으로 부리나케 추적하였다. 아브람은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자신의 병사를 몇 패로 나누어 그의 적들을 도륙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찌나 용맹하였는지, 아브람은 네 왕들의 동맹군을 상대로, 다메섹을 넘어 호바지역까지 그들을 물리치는 쾌거를 이뤄내었다. 결국, 세상의 왕들이 일으킨 전쟁은 허무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람의 개입으로 끝마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그는 조카의 목숨과 그의 가족들, 동맹군이 빼앗은 재산들을 모두 구해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람의 무리가 바닷물처럼 차고 넘친다 한들 일궈낼 수 없는 승리였다. 아브람이 구출한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그들은 아브람과 그의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돌렸다. 하지만, 승리로 기뻐해야 할 아브람의 얼굴에는 조카를 구했다는 안도와 평안은 있을지언정, 자신을 향한 기쁨이 차오르진 않았다. 아브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자신의 지쳐가는 마음이 뒤섞여, 서로 싸우는 듯 보였다. 왕들은 감사한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마음으로 그에게 일정한 재물을 가지라 할 것이고,
그것은 아브람의 재산에 쌓여, 더욱 빛나게 될 터였다.
하지만, 곳간을 가득 채우는 재산들을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아브람에게서 가시질 않았다.

아브람은 자신이 구해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 전쟁에 패해 도망쳤던 소돔왕이 아브람의 승전 소식을 듣곤, 그를 맞이하기 위해 사웨 벌판으로 마중을 나왔다. 때마침, 셈과 그의 신하들도 그곳에 도착하여, 다 함께 아브람을 맞이하였다. 아브람은 저 멀리서 자신을 반기는 그의 오랜 조상을 목격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믿음의 선조들의 재회였다. 기쁜 마음에, 그는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그의 어르신을 맞이하였다.

"어르신, 내 주여!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요?! 마치 꿈만 같습니다."

"샬롬, 아브람. 자네가 큰 일을 치루고 그곳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론, 더욱 부리나케 달려왔다네. 또한, 지친 자네와 자네 사람들을 위해, 이리 먹을거리도 준비해 왔지."

아브람은 셈이 가져온 음식보다, 같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난 일이 더욱 기뻤다. 그에게 있어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나눌 사람이 너무나 간절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소돔 왕 베라와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함께 자리에 앉아, 빵을 뜯으며 회포를 풀기 시작하였다.

아브람과 그의 수하들은 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선사한 먹거리로, 그들의 허기를 달랬다. 장정들의 몸에 생기가 돌아오고, 다시 힘이 넘쳐났다.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셈과 아브람은 오랜만에 만나, 지난 날까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고, 셈은 자신이 만난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들 곁에서 '말 없는 이'는 음식을 나눠주며, 시종을 들고 있었다.

"내게 있어서, 저 청년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네. 그는 그 누구보다 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지."

"저 소년입니까?"

그 때, '말 없는 이'와 아브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을 섬기는 빵과 포도주를 담은 병이 있었다. 셈의 지시에, '말 없는 이'는 양 손에 각각 빵과 포도주를 담은 잔을 하나씩 쥐고, 그들 곁으로 나아갔다. 셈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지 않았는가? 지금이 그 때가 아닐까 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게나."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네, 알겠습니다."

마침내, 아브람과 살렘의 왕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였다. 아브람은 적잖이 놀라, '말 없는 이'를 주시하였다. 병들어 비쩍 마른 몸에,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길만한 것은 어느 하나 없어 보였다. 아브람과 그의 동료들은 갑자기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 허약한 왕을 바라보았다. 그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이번 승리에 관해, 어르신들께 복된 말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말 없는 이'를 처음 본 사람들에게, 그의 말은 그의 외관처럼 허무맹랑하게 들렸다. 말이 왕이지, 그의 모습에 왕의 위엄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살렘을 다스리는 왕은 지도자들 앞에서, 남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떡과 포도주로 예배를 드리려 하고 있었다. 지금껏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제사장의 모습과 그의 축사, 그의 제사 방식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여, 그를 지켜보았다. 이윽고, '말 없는 이'에게서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우뢰와 같은 목소리가 뱃속으로부터 터져 나왔다. 어찌나 우렁찼던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움찔 할 정도였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말 없는 이'는 하늘을 향하였던 그의 고개를 돌려, 아브람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자신을 향한 선포에, 아브람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런 그에게, '말 없는 이'는 아브람을 똑똑히 주시하며, 말을 걸기 시작하였다.

"내 주께선 셈 어르신과 같이,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살짝 입이 열린 채 그의 말을 경청하던 아브람은 정신을 가다듬고, 그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사람들을 보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신이라 지칭하는 현실에 의아해 왔었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나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보면서 신을 찾으려 했지만, 뜨고 지는 해와 달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회의감을 느꼈다네. 그러다, 난 마침내 우리 조상들께서 섬기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네. 지금 나는 그분께서 명하신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하늘과 땅에 주님 같으신 분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네. 그렇지, 자네가 말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나는 몰랐을 터일세."

"주님께선 어르신의 길을 예비하셨고, 어르신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여쭙겠습니다. 어르신께선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과거의 어르신께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께선 어찌하여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말을 건네었다. 아브람은 그의 말에 깊은 심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건너, 맨 처음 당신 스스로를 참 주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기억해 내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에, 기뻐하고 눈물 흘렸던 아브람. 젊고 어린,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였던 아브람 자신을 보게 되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복된 약속이 있기 전,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충만하였던 것이었다.

'말 없는 이'의 축사를 들은 아브람은 기쁨 가운데, 그의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기약 없는 여정이라 욕하던 자들의 틈 속을 헤쳐나왔으나, 앞날은 막막하고 자신의 보물 같았던 조카는 자신의 곁을 떠나갔다. 자식 없이 늙어만 가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세상 가운데, 아브람은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확신 된 약속이 그의 안에 늘 함께하였지만, 여지껏 그의 눈 앞에 드러난 적은 없었다. 예배는 그의 삶이 되었으나, 해가 지남에 따라 아브람 그 자신이 온전한예배가 되진 못하였다. 자신의 병졸들을 이끌고

엘람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왕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군 왕들을 쳐부수고 왔을 때에도, 아브람은 이 전쟁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아끼는 롯과, 조카의 가족과 재산을 지켜내지 않으신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을 목격한 아브람은 자신도 모르게, 뼛 속 깊이 그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에 박살이 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승리도 주님의 것이요, 아픔도 주님의 것이었다. 그는 체면도 잊고 엎드려져 누우며, 자신의 심정을 만유의 주님께 고백하였다.

"내 주께서 옳으십니다! 당신의 지혜를 젊은이의 입술로 선포하신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바로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시고, 그분의 침묵도 공평하십니다! 공의의 왕 되신 내 주를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겠습니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해가 지고, 달과 별들이 반짝이는 밤이 되어, 평안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에 누워 눈을 붙였다. 그 시각에도, 아브람은 '말 없는 이'와 말을 나누고 있었다. 사그라지는 불빛 가운데, 하늘은 땅보다 더욱 밝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불씨를 어지르며, 아브람이 그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는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그냥 내버려두실 때가 가장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여기시는 마음이 생길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일 양식도 어찌 구할지 헤매이는 존재이니까요."

"그런가…나도 자네처럼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내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네. 내 주께서 주시는 믿음보다 죄악되고 연약한 내 마음?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이 삶? 내 유산을 물려받을 보이지 않는 내 자손? 과연 이런 나에게, 주님께선 어찌 이리 종을 자애롭게 이끄시는지 모르겠다네. 난 세상의 신들을 아주 잘 알고 있네. 그들의 눈에는 자비라곤 찾아볼 수 없고, 그런 그들에게 사람들은 절하고 자신들의 풍요를 빌지. 그런 세상에서, 주님께선 이 못난 죄인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던 거고. 허나,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그분의 높으심을 바라보는 나 자신은 주님께 더욱 좋은 것으로 바칠 수 없으니, 마치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살던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아브람의 탄식을 잠자코 듣고 있던 '말 없는 이'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것을 왜 저한테 얘기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네이기에 말하는 것일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모든 왕들 위에 서 계신 분일세. 그분의 말씀은 정당하고, 논의 할 필요가 없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의심하고 그분의 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는 그렇지 못하지. 어찌 내가 그분께, 그분의 말씀에 반하는 거짓된 마음과 죄과를 넘긴단 말인가? 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짐들을 이야기 한다 한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내 한탄을 들어는 주겠는가? 만약 자네라면 어떻게 하였겠는가?"

"제가 다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째서 어르신의 모든 한숨을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으시냔 말입니다. 어르신의 마음을 보시고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네. 어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리 비천한 사람이 부른다고 나아오실 수 있단 말인가?"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미소지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아브람, 내 주께서는 한 무리의 족장으로서, 한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르신께서 살아가시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치만, 어르신이 우리 주님 안에서 좀 더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폐부를 꿰뚫으시는 분이시요, 어둠을 가로지르는 빛처럼 임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어찌 아버지가 자식의 마음을 안다 하여,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겠습니까? 자식의 짐은 온전히 그를 낳은 이의 몫입니다. 자식이란 부모가 오롯이 사랑하여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정하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말 없는 이'의 말에, 아브람의 귀가 뚫리어 그의 말을 경청하였다.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을 향한 정죄와 죄악이 더 크다 여기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이 여태껏 그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픈 걸 아프다 바로 말하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도 고개를 돌리게 할 만큼 큰 소리로 울부짖지요. 세상의 신들이라 불리우는 존재는 불에 쉬이 타는 나무요, 입을 떼지 못하는 침묵하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르신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기대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의 선조께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동행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끼리 이뤄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주께선 어찌하여 우리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주님이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키러 찾아오시고,
어르신과 함께 하시려는지 깨닫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람에게 말하고 있는 '말 없는 이'의 음성은 무겁고 눈물을 흘릴 듯 떨리고 있었다. 아브람은 그의 말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아브람이 잠잠한 목소리로, 그에게 고백하였다.
"만유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자손에게 당신의 약속이 깃든 땅을 허락하셨네.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또 붙들린 채 이리 살고 있지. 그 믿음의 삶은 나 혼자 이뤄낸 것이 절대 아니라네. 주님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보냄 받은 이들이 일궈낸 값진 보물이지."

"맞습니다. 나 홀로 힘들 때에도 주님께선 종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제게 친히 종을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실 가족,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허락하셨으니까요."
불씨가 꺼지고, 하늘의 반짝이는 별빛만이 그들을 축복하였다. 스스로 옭아맨 사슬에서 벗어난 아브람이 '말 없는 이'에게 말하였다.
"고맙네, 자네가 해준 조언들이 응어리진 마음을 달래주었네."

"저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말 없는 이'의 말에 납득하며, 아브람이 너털웃음을 지었다. 간만에 그의 입에서 나온 자연스런 미소였다.

"그렇고말고. 우리네 삶에 주님께서 안 계셨더라면, 과연 어떠하였을까? 하늘은 빛을 잃겠고, 푸른 식물은 한 줌의 먼지가 됐겠지…참으로 우습지 않은가? 우리는 삶을 주신 분을 종종 잊고 살아간다네. 바로 지금, 우리 옆에 계시고 동행하시는데도 말일세."

아브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각자의 처소로 향하였다. 순간, 아브람이 고개를 돌려, '말 없는 이'에게 물었다. '말 없는 이'도 고개를 돌려, 아브람을 쳐다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답해주게. 어찌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겐가?"

'말 없는 이'는 기쁜 미소를 보이며, 간결하게 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창세기 18:17-19)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다음 날, 두 눈이 맑아져 하나님을 기뻐
기억한 아브람은 무리와 헤어지기 전, 자신이 얻은
재물 중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바치었고,
'말 없는 이'는 그가 받은 것을 다시 그의 왕에게
바치었다. 후에, 셈은 그것들을 갖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께 돌리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하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 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소.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이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몫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랄 뿐이오."
아브람은 그가 얻은 재물은 자신을 도운 이들을 위한
것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그의 집인
마므레 상수리나무로 돌아갔다. 아브람은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선 그에게
불어넣으신 믿음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보장하셨다.
아브람과 '말 없는 이'는 그들의 발이 땅에 붙어있는
동안, 두 번 다시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님께서는 그들 전부에게 항상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은밀한 곳, 그들
스스로도 다가갈 수 없는 마음 속 깊숙한 곳마저
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사람보다 더욱 가까이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거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들 곁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었다.

그 날 이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을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주님을 대면하였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그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여쭈었다. 자신 속 가장 깊숙히 간직해 두었던,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던 자신의 마음을 마침내 주님께 털어놓았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엘리에셀뿐입니다."

그의 물음은 어린 아이의 눈물처럼, 막힌 둑에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런 그를 주님께선 아시고 지켜보셨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 또렷이 보였다. 꽁꽁 감춰놓았던 그의 말라있던 눈가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보십시오, 이제 저의 집에서 키운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선 아브람을 밖으로 이끄셨다. 아브람의 눈 앞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그를 반기었다.

"하늘을 우러러,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하늘에 모래를 뿌린 듯, 빛나는 별들이 아브람의 눈을 쬐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가 날마다 마주하던 밤하늘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눈을 밝혀 보게 된 주님의 영광은 달랐다. 그것은 별들의 영광이 아닌, 주님께서 그의 자손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영광이었던 것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 어느 보물, 재산보다 크고 값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람은 깨달았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이외에, 세상이 꿈꾸는 그 어떤 것 하나 그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을 높이는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뜻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란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영원을 이루실 것을 전부 받아들였다. 그 어떤 말씀도, 어떤 예언도 기쁘게 받으리라. 아브람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별들을 향해 믿음의 손을 뻗치었다. 그는 만유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선물을 받고 품에 안으리라. 그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하여, 눈으로 확인하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그는 기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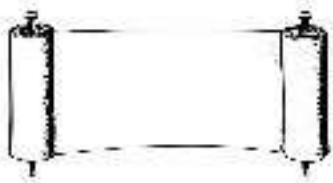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5, 6)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누가복음 16:22, 23)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쉰도 안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요한복음 8:56-58)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4) 왕 같은 제사장들아

'말 없는 이'가 사람들에게 돌아왔다. 그의 백성들은 왕을 맞이하였지만, 그는 인사할 겨를도 없이 몸져누어, 그의 침상에서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전에 없던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평화의 상징인 이 왕국에 살던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란 말인가? 살렘의 주민들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동안, 셈은 마음이 찢길 것만 같은 슬픔 가운데 거하여 있었다. 셈은 '말 없는 이'의 모습을 보며, 그를 떠나보낼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말 없는 이'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짐을 목격한 그였다. 매일 소년의 처소에 찾아가 그의 안색을 살필수록, 이 살렘의 왕이 자기들의 곁을 떠날거란 확신이 들었다. 더이상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직감한 셈은 부드럽게 '말 없는 이'에게 물었다.

"혹시 내게 더 부탁할 것이 있겠는가?"

셈의 말에 정신을 차린 '말 없는 이'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에게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고별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셈이 말을 전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전부 공터에 모여, '멜기세덱'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시종의 부축을 받으며 '말 없는 이'가 그의 처소에서 나와, 그를 드러내었다. 사람들 앞에 선 '말 없는 이'는 마지막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그들에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를 제외하곤, 바람 소리만이 사람들의 귀를 때리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라 생각하거라. 나는 너희를 주님의 이름 안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섬겨왔다. 나는 내 주님께 충성하고 내 사람들을 온유히 다스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닌, 이 나의 뒤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였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 보고 바라던 모습은 전부 다 우리가 잠시 엿본 주님의 일면이었을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변치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며, 열심이신 주님만을 바라라. 하늘과 땅을 쉬이 떠받치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만유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다 생각했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땅에서 나의 혈육은 없었으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 날 이끌어 주셨고, 너희는 나의 형제요, 내 배로 낳은 자녀들이 되었다. 너희는 내가 그랬듯이, 이곳에서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를 다른사람들에게 알리거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그분을 알려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너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거라. 그들을 부끄러워 말고 나아가거라. 그곳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기뻐하여라. 우리는 보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걸인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이니,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내가 더 많은 비밀들로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만, 그럴 수 없음을 용서하거라. 어차피, 사람은 그 인생만큼 살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주신다 한들,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끝에 우릴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기뻐해야 한다.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할 말이 더 남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이 세상과 우상들을 두려워 말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기억하거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흔하고 보잘것 없는 모래같은 존재이다.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의 발로 너희를 밟아 짓누를 것이다. 나도 이제 너희 곁을 떠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 말거라. 나를 통하여 너희를 돌봐주신 만유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거라, 주님의 백성들아!"
땅을 울리는 외침과 땅을 적시는 눈물로 말을 마친 '멜기세덱'은 그가 여태껏 돌봐왔던 백성들을 하나씩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다. 남녀요소 누구 하나 할 것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없이, 그의 품에서 그와 같이 목놓아 울며, 인사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종과 작별 인사를 나눈 '말 없는 이'는 자신의 처소의 문을 젖히고, 홀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시종은 그의 모습을 한번 더 볼까 하는 마음에, 그의 처소로 들어가 안을 살펴 보았지만, 왕의 머리털 한 올, 실오라기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방만이 그를 반기고 있었다. '말 없는 이'의 체취도,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의 인생에 더이상 '말 없는 이'는 남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9)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빈궁하고 비참하였으나, 그들이 알게 된 믿음을 품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갔다. 그들은 빵을 뜯고 잔을 마시며, 그들의 여생을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바치며 보내었다. 해가 높이 뜰수록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주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날수록 그들도 하나 둘 주님께로 돌아갔다. 더러는 사람들의 눈에 띄고 거슬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더러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 지냈다. 더러는 사람들과 화평하며, 그들의 본이 되기도 하였다. 더러는 조용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나갔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요, 예배자인 셈은 의의 주인, 의의 왕이란 이름을 후대에도 계속 이어나가, 그의 뒤에 앉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명하며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이름은 사람들에 의해 변질되어 더렵혀지고 말았다. 훗날, 말씀으로 실존했던 평화의 왕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갔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좌에는 사람들의 입김이 자리잡게 되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것으로만 채움 받던 평화의 왕국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화평하기 시작했다.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일궈 나가야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할 믿음의 삶은 이방 나라들의 생활과 뒤섞여, 그 영광의 빛을 잃어만 갔다. 하나님의 왕국이라 자처하였지만, 이미 퇴색되어 버린 이 나라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없이 천년만년 살아가려는 세상 임금들의 왕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었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흘러,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저울에 찼을 즈음에, 주님께선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땅을 다시 되찾으신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을 다시 밟았던 때에, 하나님께선 당신의 심판을 그분의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뤄 내셨다. 거짓으로 점철된 무리들과 그들의 땅은 하나님의 손에 박살나게 되고, 그곳에 의의 주인, 변질되버린 아도니세덱의 이름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었다. 의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수)'로 대체되어, 이후로 그 땅은 영원히 예루살렘으로 불리우게 된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아이 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중략)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중략)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중략)
그들이 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죽여서
나무 다섯 그루에 매달아서,
저녁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 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 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 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중략)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수 10:1-43)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이 세상에 살면서, '말 없는 이'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렇다, 저렇다 여러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주님의 정의를 나타낸 공의와 평화의 왕, '말 없는 이'를 이끄시던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이름, '멜기세덱'만이 그들의 입가에 오르내렸다. 그가 본래 누구였는지, 무슨 연고로 이런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는 이 사람, 아브라함보다 높고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반차 위에 먼저 있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평화와 공의의 왕으로 살아간 사람.
'말 없는 이'는 그 날 이후로, 더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집에도, 왕국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말 없는 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세상에 방문 하듯이 나타났다가,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그의 백성들은 세월이 흐르며 그들의 왕과 같이, 존귀하신 분의 곁으로 떠나갔다. 그의 실체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그나마 남겨져 있던 기록마저 소실되어, 그의 존재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그의 속에 예비된 참 모습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독생자, 진정한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야,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1-3)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6:20)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 계시록 1:7)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

Proof Copy: Not optimized for high quality printing or digital distribution